



편집자 주

月刊『考試界』 창간 62 주년을 맞이하여 추억의 합격기를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의 합격기 순으로 게재합니다. 여기에 실린 세 편의 글은 단순한 합격수기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합격의 영광을 얻은 합격하신 분들의 인생관·가치관·어려움을 건뎌어 나갔던 슬기와 지혜, 강인한 성취동기를 솔직하고 생생하게 그린 글입니다. 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험에 임하는 수험생들께 一讀을 권해 드립니다.

추억의 합격기(양과합격)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2년 제2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차석합격]

序 論



김 상 준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미국 Columbia 법과대학원 수료(LL.M.)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법무법인 KS&Partners 대표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1심의관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인사1담당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2년 제2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직 차석합격
-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I. Prorogue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합격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건방진 일이 될 것 같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다할 감동적인 추억이나 고생을 크게 겪어보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인생의 쓴 맛」을 모르는 풋내기인 나로서는 남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야기를 쓸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나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나아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격기를 쓴다는 자체가 건방진 일이다. 솔직히 글을 쓰자면, 결국 나는 낯두리 같은 이야기들을 주절덜 수밖에 없으나 이 작업이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지난 2년반 동안의 공부과정을 정리해 본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시험이라는 제도적 굴레를 하나 벗은 사람의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남들에게 타산지석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II. 시작과 도전

인생은 공감해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구체적인 경우 경우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표현들을 남겨놓았다. 「고시공부」, 이 단어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거의 공통적이다. 이 단어에 결부되는 다른 단어들을 우리는 일치하여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결국 나도 고시공부에 관한 선입견을 기본적으로는 변경시키지 못한 채 많은 선배들이 남겨놓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는 이 고시공부에 대한 관념들을 공감해 가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1980년도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

적이고 실존적인 과제들로 받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 해는 내 삶의 하나인 분기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법대의 분위기는 신입생의 눈에 비치기에는 조금 기가 죽어 있었고 어디엔가 위축되어 있는 듯하게도 보였다. 법대가 앞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대학의 생활은 적어도 그 해의 분위기 안에서는 부적합했다. 원론적이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2학기가 끝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게 되자 막연히 잠재해 있던 이러한 모순을 극대화 시켜 버렸고 나는 좀 더 진지하게 내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고시를 볼 것인가」—이 문제는 어쩌면 전혀 의문의 여지도 없는 듯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꼭 심각하게 마주쳐 보아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 때 옆에서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던 고등학교 동창이며 같은 법대 동창인 몇몇의 친구들(그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사법연수원에 같이 다니고 있다)의 도움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고시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가—이 부분의 물음에 대해 이렇다고 할 답을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들을 열거해 볼 수는 있으나 별반 마음에 드는 것은 없다. 어쩌면 나는 커다란 비전이나 성취동기를 갖지 못하고 공부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왜 행정고시공부를 시작했는가하고 물으면 더욱 곤란해진다. 단지 그 당시 법대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고 마침 경영대를 다니고 있던 친구(운준, 그는 작년에 27회 행시에 합격했다.)가 행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며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한 것이 직접적 동기가 된 것이다. 그 위에 1학년때부터 주욱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의 법학이 아닌 과목들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던 터라 경제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행정고시는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여하튼 1981년 1,2월 두 달동안 거의 집안에서 칩거하면서 「내가 무엇이 될꼬하니...」, 이따위 생각만 하며 공상을 떨다가 2월말 윤준이와 만나 오는 제25회 행시를 치르기로 하고 수석은 내가, 최연소는 그가 하기로 약속(?)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오만도 보통 오만이 아니었으나 껍이나 쌀쌀했던 그날 밤, 화곡동 골목길 담벽에 돌이 쪼그리고 앉아 깡소주를 나눠 마시며 주고 받았던 그 말들이 꽤나 생생하게 남아 있다.

필요한 기본서들을 구입할 때의 기분은 자못 비장하기까지 했다. 주위에 행시공부를 하는 사람은 윤준이 말고는 없었고, 아는 선배도 없이 혼자 공부 방법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무척 힘이 들었으나 합격기에 소개된 방법들이 크게 도움되었다. 1차 과목의 민법총칙과 2차 과목의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했다. 처음 읽는 법률이론들은 무척 잡다해 보였고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제원론도 시험공부라는 목표 앞에서는 그리 흥미가 없었다.

결국 3월부터 6월까지 한 공부의 양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기말고사가 끝난 6월 말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1차공부에만 주력을 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고시와 대결하는 것인데 이왕 시작을 하려면 멋있게 스타트를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 해 9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1차 4개 과목(민법총칙, 국사, 재정학, 영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 어쩌면 그 3개월이 이후 타성에 빠졌던 나머지 기간과 비교할 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아닌가 한다. 9월 27일, 청량리 중학교에서 만난 첫 고시하는 것은 나를 무척 어색하게 만들었다. 모두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틱수룩해 보였고 갓 미성년을 넘긴 나로서는 아저씨같은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본다는 자체로 주눅이 들 것 같았다. 다행히 시험을 치루고 한 달 뒤

합격자 발표를 들었다. 어찌나 기뻐는지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왔다. 아마 첫 시험의 합격 소식이 제일 기뻐던 것 같다. 2차 시험은 한성대학에서 있었는데 구경하는 기분으로 끝까지 앉아 있었다. 용케 직전에 읽었던 문제가 나오면 간신히 긁어모으듯이 답안지를 메웠다. 국제법에서 큰 문제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국제법 교과서 어디쯤 이런 말이 있을까 하다가 민총에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 운운 하면서 거짓말로 네 장쯤을 메웠다. 후에 고시잡지에 실린 채점소감에서 국제법을 담당하신 어느 교수님은 요즈음 고시 응시자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채점 결과가 심히 불만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사정변경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풀이한 답안도 있었으며 그야말로 창작의 실험장이었다고 개탄을 하셨다. 이 글을 읽고 고시 응시자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큰 몫을 했구나하고 실소하며, 고시공부의 어려움을 통감했다. 시험 결과는 운이 좋았는지 한 과목도 과락은 없었다. 위와 같은 촌극을 빚은 국제법도 40점은 간신히 넘어있었다. 커트라인에서 평균 4점 정도 모자라는 성적이었으나 공부에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1년간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렵듯하게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행정고시를 직렬별로 분야를 세분하고 과목도 변경되어 또 한 번 혼란을 겪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공공부와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법과목이 많은 일반행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선택 과목은 민법과 국제법으로 정하였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동안 민법과 국제법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민법 sub-note를 방학 내내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결국 방학이 지나고 나니 근 1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또 하나의 책이 되버

리고 말았다. sub-note를 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실익은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1982년 3월초 수북이 쌓인 sub-note를 바라보며 한숨만 폭폭 쉬다가, 도서관 법률자료실에 하루종일 틀어박혀 고시잡지의 합격기를 모조리 읽어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해 온 공부가 너무 자기도취적이었고 편파적이었던 것, 즉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은 아예 팽개쳐버렸다는 점,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단지 회독수를 늘리는 데에만 만족했다는 점, 나의 능력을 너무 믿고 있었다는 점 등이 느껴졌다. 자신에 대한 질책과 함께 공부를 하는 데에 기를 넣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했다.

지난 2차 시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법학과목은 우선 교과서의 목차의 줄거리를 암기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에 병행해서 교과서 내에 항목마다 목차를 정리해서 끼어 놓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머릿속에 잡히게 되면 다시 볼 때에는 그 목차정리를 한 paper만 보고도 내용을 재생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과 같은 전공 외의 과목들은 정형적인 문제집도 그리없고 공부를 깊게 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선에서 공부를 절제시킬 필요도 있었다. 내 나름대로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sub-note를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항상 계획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나는 유달리도 봄만 되면 슬럼프에 빠지곤 했는데 그 해 봄도 썩 좋지는 못했다. 그래도 3,4,5월까지의 계획에 대체로 맞추어 나갔으나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방학

이 되자 서울에 남아있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간 곳이 강원도 상동의 삼촌댁을 찾아가게 되었다. 배낭과 가방 두 개에 책을 잔뜩 넣고 태백선을 탔다. 이제 올 여름방학에 배수진을 쳐야만 했다. 청량리역을 떠나면서 이번 여름에 계획량을 다 마치기 전에는 서울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했다. 항상 공수표만 날렸던 그 많은 계획들 그 많은 격문들은 이제 반복해서는 안되었다. 운이 좋았는지 마침 삼촌이 다니시는 회사의 직원용 아파트가 빈 것이 있어 그 곳에서 40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경제학과 정치학은 내 나름대로 소화해서 각기 note를 한 권씩 만들었고 행정법, 국제법, 민법은 만족에 가까운 수준까지 정리와 암기를 하게 되었다. 이제 서울가서는 국민윤리와 행정학만 정리하면 되었다. 그 지루하던 더위와 고독과 별레들 틈 사이에서의 싸움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서울에 와서 시험볼 때까지 두 달여 동안 나머지 과목들을 정리하고 참고자료를 보충해 가며 보냈다. 그 사이 몸살이 나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번져 고통을 받고, 학교에서는 오래간만에 축전이 벌어져 다소 들뜬 분위기로 인해 공부하기가 곤란한 때도 있었으나 용케 버티어 냈다.

1982년 11월 3일부터 국제대학에서 2차 시험이 시작되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대체로 공부를 해 둔 부분에서 출제되어 큰 무리없이 임할 수 있었으나, 경제학에서 큰 문제(거시경제분석에 대한 통화론자와 Keynes학파의 이론 및 정책상의 차이)와 작은 문제 하나(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과락만 면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지막 날,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에 나와 격려를 해 준 친구들과 마신 술은 대단히 상쾌했었다. 처음에는 경제학만 과락을 넘기면 대체로 합격하

지 않겠는가 추측도 해보았지만 발표날이 가까워지면서 하나 둘씩 실수한 것이 발견되어 이리다가 평균 50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지고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기다림은 사람을 크게 하는 지도 모른다. 발표날까지의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합격여부를 아는 날 윤준과 아침부터 만나 시내를 쏘다녔다. 하루종일 멍청하게 돌아다니다 거의 땅거미가 질 무렵 전화로 합격을 확인했다. 같이 공부했던 윤준이는 아깝게 불합격이었다. 그날 밤 종로의 술집에서 마신 술은 허탈함이었다. 똬지 붓 뜬 것 같다가 눈물이 한방울 나왔다. 3차 시험도 대과없이 치루었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들으면서 2차 평균이 60점을 넘었고 차석인 것을 알았다. 너무 과분한 처사에 적잖이 당황했다.

III. 감사

1983년 1,2월, 그동안 못했던 전공공부를 시작했다. 시험부담이 없는 공부는 훨씬 부드럽고 재미있었다. 사법시험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4월 중순부터는 1차 공부를 했다.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하여 공부하기는 수월했으나 딱 커트라인에 걸려 합격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를 볼 때까지의 40일쯤 되는 기간 동안 소송법과 형법, 상법을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행정고시 때 해 둔 국민윤리, 행정법, 헌법, 민법 등은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정도로 보아 나갔다. 1983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치른 2차 시험 기간 동안 잠을 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였다. 몸은 피곤했으나 정신만은 상쾌했다. 다음 날 있을 시험과목은 그 전날 통독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공부해둔 한도에서 대략 8내지 9장 정도의 분량으로 답안지를 메울 수가 있었다. 상법과 형사소

송법을 신통치 못하게 써 버렸기 때문에 합격은 별로 생각할 수 없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썩 하나에 간단한 세면도구만 챙겨서 동해바다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늘 나와 함께 했던 고독이라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론을 가지고 투정을 부린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절대자와 대면해서 풀어야 할 문제임을 느꼈다. 오는 대학원 시험과 다음 해의 2차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여름만큼은 조금 쉬고 힘을 비축하여야만 했다. 9월 26일 아침, 같이 공부를 해 온 고등학교 동창들이 거의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따른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날오후, 합격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만난 친구가 나의 합격소식을 전해주었다. 무엇인가 크게 얻어맞은 듯한 열떨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짧은 공부기간이었지만, 쌓여있던 피곤함이 모두 밀려오는 듯했다. 3차 시험 첫날의 개별 면접 시간에는 민법 교수님이 청구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에 대해 물으셨고, 다음 날의 집단토의 시간에는 가동기담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 등에 관한 과제가 주어졌다. 아는 한도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 2차 시험의 결과는 50점 후반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얻었다. 모든 것이 부모님과 주위의 동료들의 힘에 의한 것임에 감사드리고 조용하게 나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IV. 다시 출발점에 서며

이상은 지난 2년 반 동신의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이란 두차례 출전을 치루었던 나의 무용담

이다. 생각해보면 쉬운 시행착오와 어설픈 그지없는 허점투성이의 고시공부였다. 내 공부 과정에서 발견되는 많은 허점들이 글로서는 그리 간단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그 허점들이 타산지식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며 몇 가지 스스로 반성되는 점과 내 나름대로 남들의 견해를 나의 공부에 반영시켰던 점들을 합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무이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단시일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공부가 아닌 만큼 굳은 목표와 더불어 여유있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현명할 것이다. 그것이 긴장된 생활이 강요되는 고시공부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기본이라고들 한다. 이번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강박관념으로 인해 정작 실전에 임해서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한다. 교과서가 보기도 싫어진다면 곤란하다. 나는 교과서를 단순히 책으로만 보지 않고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인격체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하였다. 책을 읽을 때, 특히 정독을 할 때에는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으로 임했더니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문제에 관하여 볼 때, 나는 시험보기 직전에 그 과목을 1회독 다 할 수 있을 것에 궁극의 목표를 두었다. 공부를 어느 수준이상으로 해 놓고,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험보기 직전, 혹은 그 전날 밤에 읽었던 내용은 시험장에서 상당 부분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sub-note를 하건, 목차를 암기하건, 다독이건, 정

독이건, 단권화이건간에 그 공부의 목표는 한번 그 과목을 완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만일 회독수는 느는데 단지 몇 번 읽었다는 정도에서 공부를 한 농도를 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핀트가 벗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셋째, 1차 시험에 관하여 볼 때, 요즈음은 2차보다 1차 시험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흔히들 말하곤 한다. 물론 이 말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우선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당연한 이치에서 보더라도 1차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1,2차를 동시에 보려는 사람들도 1차 시험 전 2개월 정도는 2차에 욕심을 갖지 말고 1차에만 전력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1차 공부를 문제집 풀이를 위주로 하였는데 대략 한 과목당 문제집을 두세 권 정도 풀어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틀린 것만 따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외국어는 단시일에 되지 않으므로 시험보기 상당기간 전부터 하루 중 가장 짜증스러운 시간이라든가, 혹은 가장 정신이 맑은 때라든가, 일정 시간을 정해 꾸준히 공부를 계속해야할 것 같다.

넷째, 2차 시험에 관하여 볼 때, 특히 시험장에 임했을 때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든다면, 초안을 잡는데, 10분정도씩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는 문제를 덤벼대다가 논점을 빠뜨린다거나 논리의 전개가 험클어지는 것을 피해야 하는 점을 우선 짚어볼 수 있다. 특히 처음 보는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어도 당황하지 않고 남들도 잘 모르겠거니 넘겨버리고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성실히 쓰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용어의 정답에 대해서는 정확에 가까울 정도로 해둘 필요성이 크다. 즉 모르는 문제라 해도 그 테마에서의 의

의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오히려 덕을 볼 때도 있다고 한다. 내가 경험한 한, 평균점 이상의 답안(물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답안은 어떨른지 모르겠다)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충실함으로서만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다. 교과서나 문제집의 틀을 그대로 베낀 듯한 답안이 채점자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쉬울지 모르나 한편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 채 독창적인 답안을 쓴다고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위험성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윤리나 행정고시 과목들 중에는 정형적인 틀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나온다기 보다 오히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듯하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작문하는 식으로 써 놓고 만족할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알면서도 너무 양이 많아 정리를 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말하기는 쉬우나, 이런 류의 문제는 초안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리의 전개, 문제 핵심부분과 관련부분과의 논술 분량의 조절, 자기 견해의 확립 등의 정리를 하고 답안지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본다.

다섯째, 시험에 임박한 2~3개월이 그 해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지구력과 순발력이 이 곳에서는 모두 필요한 때인 것이다. 생활은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하면 마음만은 편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대체로 순발력에 의존해 공부를 한 편인데, 집중적으로 공부한 달이 그렇지 못한 반년 보다 그 성과에 있어서 월등했던 것 같다.

여섯째, 기본서에 대해서 볼 때, 여기서는 일일이 책 이름들까지 열거하지는 않겠다. 내가 본 책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내 스스로 책을 선택했던 원칙만 말한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내용은 아주 훌륭한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에는 부적합한 책이 있다. 즉, 목차의 구분이 별로 안 되어 있다든가 특정의 학설이 너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주로 이런 책은 반드시 한 번쯤 읽어보고 기본서로 삼은 책의 부족한 부분에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V. Epilogue

지금까지 나는 서론만을 쓴 셈이다. 이것은 나의 조그만 하나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밖에서는 본의 아닌 눈물들을 흘리고 있을 때 나는 도서관에 앉아 이 시대의 모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밤 11시 교문으로 나오는 도로의 가로등이 안개로 뿌옇게 번질 때 떠올랐던 많은 생각들이 생생하다.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벗들, 특히 뜻벗들과 연송회의 멋진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올해쯤 기쁜 소식을 전해 듣기를 바란다.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장근섭

『학력사항』

-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부산 해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국장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주 호찌민 총영사관 영사
-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I. 머리말

언젠가 공부하면서 이런 구절을 본적이 있다.

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

Unceasing effort is the price of success.

피흘리며 쟁취하였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을 끊임없이 경계하여야 하듯이,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만이 그 대가로서 요구된다는 의미이리라. 그날 이후 뒤의 구절은 나의 삶의 모토가 되었다.

한편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는 나는 그 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부할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고 뒷바라지하여 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를 드린다.

합격기라 하여 특별하게 쓸 자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그냥 붓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 갈 생각이다. 시험공부 시작할 때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벅찬 감동이 엇그제 같다. 사실 선무당이 뭐 잡는다고 나의 경우도 이 경우가 아닐까 한다. 짧은 수험생활의 이야기가 감동과 역동하는 자신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리라 생각한다.

II. 공무원을 선택

고등학교 때 나는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고3때 성적에 따라 사회복지학과에 쓰게 되었다. 변호사 되는 꿈이 깨져서 그런지, 해방감 때문인지 아무 생각 없이 1학년을 보냈

다. 군대나 갔다 와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학년이 되자 진로문제를 생각하였다.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이 미흡한 상태라 생각하였고,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베풀기 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한 제도로써 내가 옛날에 생각하였던 것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험을 쳐보고 싶었으나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에 가기로 하였다. 89년 8월말 신체검사 결과 면제판정을 받고서 곧바로 공부에 돌입하였다. 군대문제가 해결되고 공부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으나 열심히 하여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Ⅲ. 제1차시험의 준비

고등학교 때 공부한 후 어떤 목표가 생겨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정력적으로 공부하였다. 오히려 2차 때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89년 9월부터 아무 준비 없이 고시계에 입문하였다. 1차 붙고서 2차 공부하는 87학번 선배를 다라 다니면서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읽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기숙사에 있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끔씩 학교에도 다녔으나 주로 고시원에 틀어 박혀 있었다. 수험생활 가운데 이때가 제일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기인 것 같다.

행시 1차에는 영어가 관건이라고 해서 영어에 많이 투자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투자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TOEFL 한권과 문제집 한 권정도 보면 영어는 할 만큼 한 것이다.

정보체계론을 처음 시행한 해였으므로 정보체계론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정보체계론의 내용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험과목으로 선정한 처사가 한심했다. 아무튼 학원수강을 통하여 가까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국사, 민법총칙, 헌법 등은 보통 시험 공부하듯이 하였다. 민법총칙은 처음 입을 때는 어려웠으나 나중에는 재미있는 과목이 되었다. 경험상 시험치기 전날에는 민법총칙을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덧 시험날이 되었고 시험치른 후 합격할 것 같았다. 여름방학은 집에서 보내게 되었으나, 발표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했다. 합격발표날 기부니 매우 좋았다. 대학 시험 붙었을 때의 기분과 같이 좋았다.

Ⅳ. 제2차시험의 준비

1. 수험생활

3학년 2학기가 되자 나는 어느덧 중견 고시생이 되었다. 2차 준비 없이 고시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암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차 준비 전에 행정법·경제학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2차 준비를 효과적으로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1차에 한 번 떨어지고 다음 해에 1차, 그 다음 해에 2차되는 경우에 고득점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1차 떨어지고서 2차 시험과목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시는 점수가 중요하므로 고득점 전략을 나름대로 세워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아무 준비없이 시작했다가 합격한 경우도 바로 여기 있으니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년이란 세월은 하기에 따라서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8월말 우선 어렵다고 하는 행정법을 시작하였다. 선배의 권유에 따라 석종현 교수님의 「일반행정법」을 읽기 시작하였으나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무조건 계획된 양을 읽기 위해 진도만 나갔으나 비효과적이었다.

2학기에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몇 가지 활동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 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도움을 준 교회 친구들이 많다.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친구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 보다. 짝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 그 해 가을을 마감하였다(물론 과감하게 도전하였고 딱지 맞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그럭저럭 가을을 마감하고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였다. 거처를 기숙사에서 고시원으로 옮겼다. 2학년 겨울방학때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였으나 그리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 같지는 않다. 고시원에 들어와서부터 경제학 공부를 하였으나 아무 것도 모른 상태였으므로 미시, 거시의 양에 압도되어 당황하였다. 경제학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정리하기도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된다.

방학 중에 학원 수강도 많이 하였다. 행정법과 경제학 두 과목만 수강하였는데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행정법은 태학관에서 세 달 가까이 수강하였는데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경제학은 종로에까지 나가서 수강하였으며 경제학은 기본적인 뼈대와 골격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선생님의 열정적인 태도가 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며, 그러한 태도를 나는 존경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준 도움에도 감사드린다. 두 분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으나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

다.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의 강의 테이프와 경제학의 Note가 있다고 들었으므로 구할 수 있다면 구입해서 보기를 바란다.

고시원에만 계속 있으니 집중력이 약화되었다. 처음에는 불안, 긴장 등이 원인인줄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절한 신체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가끔씩 학교에 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활리듬이 바뀌어 식사를 거르게 되었다. 그 결과 체력이 약화되었다. 오랜 고시원 생활은 수험생활에 좋지 않은 것 같고,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가 있다.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였다.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나름대로 방학 중에 열심히 한 것 같았으나 막상 봄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모두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였다. 행정법, 경제학과 함께 행정학에 투자를 하였다.

5월에는 수험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매일 규칙적으로 도서관에 오기는 하지만 불안·잡념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것이 슬럼프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바라보면서 공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긴장과 초조를 경험하였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였지만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 초조함 때문에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가 나곤 했다. 2,3일 집에 갔다 왔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극복되었다.

5월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갔다. 곧바로 선배들과 함께 Group study를 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7월초가 되어서야 답안작성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기회는 나에게

겐 큰 도움이 되었다. 시험을 3,4주일 남겨 두고서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 제2차 시험

시험이 다가왔지만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단지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다. 첫 시험날 이브에 실수를 하였다. 잠을 조금 늦게 잘 생각으로 각성제를 한 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날은 잠을 자지 못했다. 공부하면서 밤을 샌 것이 처음이어서 무척 당황하였다. 시험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당황 등으로 인해 매우 초조하였다. 아침 식사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박사”께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였다.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 같은 고시원에 있던 “준팔이 아빠”는 청심환을 사서 주셨는데 역시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 역시 그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들의 따뜻한 관심 아래 공부하였다(정박사, 준팔이 아빠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국민윤리는 긴장 가운데서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마음의 평온함 가운데서 치렀다. 교재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학원 강의로 대체하였으니 성적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되었다.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논함이 큰 문제, 도덕률, 정치률, 변증법적 유물론이 작은 문제였다. 답안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득점 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하였다.

행정법은 나름대로 자신있게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를 보자 허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행위의 특성을 논하고, 행정심판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고시잡지에 실린 출제

위원의 말대로 너무나도 평이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출제위원은 어떤 문제를 출제해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앉아서 당하는 우리 수험생들만 불쌍하다.

경제학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전하였는데 역선택을 알고 있어서 비교적 덜 힘들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어서 대강 관련되는 것들만 언급하였고, 현실 경제문제에의 적용은 꿈도 꾸지 못했다.

행정학은 생각지도 않던 예산과 정치를 논하는 문제가 나왔으나 학교에서 심심풀이로 들었던 재무행정의 강의가 도움이 되어 대강 썼다. 그러나 답안의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점수를 보니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 Ombudsman 제도, 임시조직은 막상 쓸려고 하니 쓸 말이 없었다. 행정학은 기본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였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3일째,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였다. 사실 기본과목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당락과 고득점은 선택과목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문제론은 평이한 문제였다. 나름대로 최선의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답안이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하였다. 시험치르면서 무언가 혁신적인 idea를 찾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노동법은 5월부터 공부하면서 제일 나를 괴롭혔던 과목이다.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는데도 답안도 생각한 만큼 썼다. 성적도 만족할 만하였고 합격의 견인차였다.

4일째 이제 사회학만을 남겨두었다. 더욱 조심하였지만 몸은 매우 피곤하였다. 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썼는데, 작은 문제 중에 acculturation을 몰라서 고전하였다. 시험 끝나고

알아보니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이 때문에 시험 끝나고서도 개운하지 않았다.

2차 시험에 관한 나의 기억은 “초조”밖에 없다. 초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이 실망스럽다. 아무튼 나는 다시는 그런 긴장의 순간을 맞보고 싶지 않으며 더구나 4일 간 그런 긴장과 초조를 경험할 자신이 없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험결과가 자기가 예측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나도 2차 시험치고 나서 점수를 예상하여 봤는데 실제 점수와 차이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채점위원 또는 출제자의 의도와의 일치 여부가 변수가 되지 않는가 한다. 그러니 시험을 못 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서 휴학하였다. 낙향하여 컴퓨터에 재미를 붙이고 지냈다. 떨어질 것인지 붙을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되도록 머리에서 잊려고 하였으나 발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졌다. 2차 합격소식에는 담담하였고, 3차 합격소식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지내왔던 시절들이 향수처럼 가슴에 남아있다. 과거는 나에게서는 언제나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V. Episode

과거에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거의 예의없이 love story가 등장했던 같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런 감동의 love story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순진한 짝사랑의 기억은 갖고 있다.

객지에 나와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더욱 심했다. 대부분 주위의 친

구들에 의해 cover가 되지만 가끔씩 뚫고 나온다. 몇 번 짝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영원히 잊을 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때는 3학년 1학기 4월이었다. 한창 1차시험 준비로 바쁜 와중에 그녀를 보게 되었다. 2학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그녀가 겨울방학 때 대변신을 한 것이었다(사실은 그 전부터 그녀는 참 예뻐다고 한다. 그 동안에는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녀의 이름이나 특징 기타 그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아무튼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었다.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1차시험 준비를 해 나갔다.

1차시험 전전날 나는 딱지를 맞기 위해 주섬 주섬 편지를 써 내려갔다. 평생 처음 써 보는 연애편지인 셈이었으나 그러한 극도의 불안정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의 심정은 지금 일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쑥스럽기 그지없다.

그때 이후로 지금껏 편지는 받지 못했다. 얼마 후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매우 마음이 졸였다.

지금도 가끔씩 그녀를 만나게 된다(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만날 수 밖에 없는 사이이다). 2차시험에 합격하고서 그녀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과거의 일은 잊은 듯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잊고 있지 않아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VI. 느낀 점들

고시에는 안들어서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 들어서면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것이 그 다음 좋

은 일이다. 이 길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하여 빨리 끝내고 인간답게 (고시를 공부하는 도중에는 사람 구실하기 힘들므로)살아가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기의 공부의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외로움 등 기분의 변화에 대처하기도 용이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부의 흐름을 살펴라. 변화는 공부의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가지라. 하루 공부 안하는 것은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없으나 장기화 되면 리듬을 잃게 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져라.

일간신문의 정기구독으로 적절한 현실감을 가져라. 지나치게 시사적인 것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학교나 학원 강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기대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 강의는 먼저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후 결정하라.

적절한 운동을 하여 두뇌의 활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도록 하라. 적당하게 몸이 피곤해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슬럼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

과감하게 생활패턴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에 위로가 될 것이다.

특히 2차시험 준비에 있어서, 정보를 얻을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이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수험가에 떠도는 정보중에도 참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절에 가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공부하는 세상이 아니다. 물론 절에 들어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스님이 된다면 수험강의 정보가 필요 없을 것이다.

VII. 맺음말

나는 행정고시 합격을 인생의 한 과정 중에서 약간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시작인 것이다.

앞으로 나의 지식과 두뇌를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까 두렵다.

거창한 꿈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또한 이를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발전시킨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삶의 여유와 멋을 찾고 싶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별히 고시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승格的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읽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평이한 고사성어와 함께 나의 조그만 글을 맺기로 한다.

‘盡人事, 待天命’



한 동 만

『학력사항』

- 광태웅소르본대학교 대학원 국제기구법 석사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안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실 재외동포영사대사
- 제23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장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관
-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관실 통상전문관
-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 외교통상부 안보정책과 과장
-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 1985년 제19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I. 고시이전

하늬바람 불어와서 송화가루 흩날리어 계절의 향을 전하던 1980년 6월 어느날, 어두 킴킴한 방에서 창문 틈으로 비치어 오는 빛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추상적인 어휘를 목전에 나열해 놓고 세월을 빗질하던 어리석은 생활에서 무언가 전환점을 찾아 새롭게 변신하고자, 친구와 9박 10일로 전국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의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를 생각해 보니,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근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적인 민주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현국제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민주적인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간으로서 이 대외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생활 motto를 6S로 정하고 실천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6S란 ① Sincerity(성실), ② Study(자기발전을 위

한 꾸준한 연구), ③ Saving(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 ④ Smile(항상 명랑하고 친절한 생활), ⑤ Service(국민의 공복으로 생각하는 생활), ⑥ Sacrifice(국가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6S를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열도록 땀과 지혜를 짜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II. 고시여정

仁川 누님택에서 통학하게 되었는데, 새벽 5시에 나와 종로에서 Spain語를 배우고, 학교 강의가 끝난 저녁에는 Alliance francaise에서 Mauger I 을 수강하고 집에 와서는 고등학생을 괴외지도 했습니다. 시험 4일 前까지 Arbeit를 하면서 열심히 한 덕택에 제15회 외시 1차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과외금지령이 내려 3학년 때에는 학교 앞 사설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소화가 안되어, 급기야는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 매일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전공공부도 충실히 했는데, 운이 좋게 학교장학금과 국제로타리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무난히 해결하였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수렴하기 위해 고시공부만 하도록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15시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제16회 시험에 20명으로 선발인원을 줄인데다가 실력부족으로 제16회 제2차시험에서 0.75점 차이로 낙방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다시 생활비 마련을 위해 Arbeit를 하면서 신앙을 굳히기 위해 U.B.F.(대학생 성경읽기 클럽)에서 2달 동안 美國 선교사와 영어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이것이 슬럼프를 이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

다.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교공부에 충실하면서 다시 본격적인 고시공부로 돌입했는데 그 당시 記者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등 정신적인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선배님과 아버님의 적극적인 권유와 정신적 패배감을 극복해야겠다는 굳은 信念으로 제17회에 제1·2차 동시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1차를 경시하고 30일 정도 준비한 결과 1차에 0.5점 차이로 떨어져 크게 실망하고 포기하려 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 재도전하기로 결심하고 軍에 입대했습니다. 입대시에는 행정병 이였으나 며칠 후 기동타격대 要員이 되어 매일 완전군장하고 10km 구보하는 심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틈틈히 영어와 불어공부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대대장님의 특별배려로 C.P 당번을 하면서 창고에 가서 공부하여 제18회 1차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19회 2차시험 5개월 前에는 이화여대 앞에 있는 응지사법행정연구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국제법과 민법총칙은 목차를 녹음하여 식사때나 잠자기 前에 들었는데 목차를 암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40일 前 1985년 1월 17일 갑자기 아버님이 별세하셔서 1주일간 공백이 생겼는데 그 후에는 더욱더 정신을 집중할 수 없어 목차를 암기하는데만 주력을 두고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진을 쳤는데 20일 前에는 거의 목차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공부하는 동안에 예상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거의 적중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Ⅲ. 고시방법론

1. 제1차시험

처음 외무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은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기출외무고시 1차 영어에 85점 이상)은 3개월 정도를, 그렇지 않으신 분은 4개월 정도 투자하시는 것이 안심이고 제1차, 2차 동시합격을 하실 분도 최소한 2개월 이상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은 2년 정도를 고시공부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처음 8개월은 영어, 제2외국어, 경제학만 하시고 그 후 4개월은 1차시험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시면 다음 1년 동안 2차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최종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어학을 경시하고 모든 2차 과목을 처음부터 공부하였는데 이것이 실패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① 영어는 평소에 Korea Herald나 Time 및 Newsweek誌를 구독하시고 1차시험 보기 4개월 전에는 토폴(이재욱 저, 또는 Academy)과 Vocabulary 33,000을 보시고 시험시간 배점은 70분 정도 할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으며 ② 政治學은 이극찬·백상진 교수님 冊과 기존 문제집을 풀어 보시되 최근에는 國際政治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제정치학 서적을 많이 참조하시고 특히 김학준 교수님의 ‘한반도와 국제정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③ 헌법은 legal mind가 부족하신 분은 문홍주 교수님 冊으로 보시고 대충 윤곽을 잡으신 후에 권영성 교수님 冊을 보시고 기존 문제집에서 똑같이 출제되는 것은 거의 없으니만큼, 모든 과목도 그러하겠지만 기본서를 철저히 하셔서 응용문제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④ 國史는 대입용 참고서로 윤곽을 잡고 古代

부분은 이기백 교수님의 冊을, 근세이후 부분은 한우근 교수님의 冊을 참조하시고 변태섭·이현중 교수님들의 문제집을 풀어 보시되 최근에는 아주 미세한 부분도 출제되므로 철저히 하시고 시간이 許하는 대로 논문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⑤ 文化史는 대입용 참고서와 조좌호 교수님 冊을 보시되 전체적인 흐름과 동·서양의 시대적 비교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이를 위해 사건별 연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제2차시험

國民倫理는 형설출판사의 국민윤리와 우태하 外 1人 공편저 문제집을 많이 보는데 형설출판사의 冊에는 民族主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제18회 外試문제인 韓國的 民族主義에 대한 것에 충분한 해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민윤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16회 2차시험 보기 약 한달 전에 20개 시범운동에 대한 정부의 통일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신문을 자주 보지 않아 전혀 못 썼기 때문에 점수가 나 빠릅니다. 반면에 제19회 50점짜리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은 김학준 교수님의 논문을 요약해서 썼는데 점수가 좋았습니다. 평소에 시사적인 내용은 항상 스크랩에 두시고 교수님들의 논문은 요약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國際法은 이병조·이중범 교수님의 책과 이호진氏의 문제집을 많이 보는데 가능한 한 case를 많이 써 주시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할 것 같으며 3차 해양법에 관한 것은 매년 출제되므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고 특히 3차

해양법에 대한 선 후진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 자기의 견해 등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經濟學은 原論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미시·거시 국제경제 冊을 보시되 비경제학도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순한 암기보다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이형순 교수님의 거시 경제학은 케이즈파와 다른 Monetarist의 이론과 Supply-side Economy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국제경제학은 박진근·정도영 교수님 冊을 모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經濟新聞이나 Journal을 많이 참조하시어 시사적인 내용(예: 금리인하, 환율인상, 외채, 수입자유화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경련에서 출판한 '84 民間經濟白書'가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은 송병락 교수님의 韓國經濟를 一讀하시면 기존이론과 韓國의 經濟問題를 링크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國際經濟學은 조재관·박상식·이상우·이기택·이호재 교수님의 冊과 Hans Morgenthau교수의 'Politics Among Nations'를 보시되 중복된 부분은 노트에서 정리 요약하시고 國際問題, 新東亞, 政經文化 등의 Journal을 참조하시고 신문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것은 요약해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제18회 外試 문제인 '핵' 문제는 이호재 교수님과 Kissinger의 冊이 도움이 되었고 제19회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과 반패권은 박상식 교수님과 이기택 교수님의 冊이 도움이 되었으며, 환태평양 구상은 신문과 Journal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外交史 부분은 백경남 교수님 冊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民法總則은 곽윤직 교수님 冊을 기본서로 삼영사 刊 民法(上)을 참고서로 하시되 民法

(上) 문제집에는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다른 참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英語는 Korea Herald의 사설과 Time誌를 보시고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영작문 Series를 보시되 2차시험 6개월 前부터 3개월 前까지는 고급영문해석을 보셔서 英文을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은 긴 영문을 속독하여 전체적인 뜻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공부방법은 객관식시험에는 효과가 있으나(제 경우는 85점 이상) 2차시험은 해석에 정확성을 요하니만큼 평소에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공부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佛語는 Mauger I, II와 대입용 참고서인 완전불어로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단문은 암기하여 작문공부를 병행하시고 最新佛作文으로 보충하시고 Courier de Coree를 정기구독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비하시고 Le Monde 신문이나 L'Observateur를 프랑스문화원에서 복사하여 공부하시기 바라며 저는 Le petit Prince(어린 왕자)와 L'Etranger도 참조했는데 佛小說은 안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3. 제3차시험

제3차면접시험은 오전에 개별면접을, 오후에는 집단면접을 하는데 개별면접시에는 외교관의 지원동기를 영어로, 가족상황,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를 제2외국어로 外國人에게 소개하기, 불국사를 영어로 소개, 중공과의 수교가능성, 빈부격차의 해소방안, 국제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등을 테스트하는데 단정한 복장에 겸손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 되고, 집단면접은 26명을 6개조로 나누어 한 명씩 5분동안 speech를 하는데 주어지는 주제는 '수입자유화의 평

가, 교복 자율화, 86, 88 국제경기에 임하는 국민의 자세' 등인데 이때에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IV. 부탁드리고 싶은 말

1.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우선 이를 해결하고 2년 동안 전력투구하여 단시일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2. 外務考試는 語學이 중요하므로 어학에 많은 투자를 하시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이성문제는 장래가 약속되신 분을 제외하고는 자제하는 어떨까 생각됩니다.
4. 서브노우트는 노트에 목차는 빨간펜으로 내용을 검정펜으로 요약하여 쓰시되, 여백을 충분히 남기어 나중에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파란펜으로 적으시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공부장소는 독서실이나 학교도서관에서 많은 고시생간에 정보교환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V. Epilogue

합격하시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5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6주 교육을 받고 1년 반 동안 정부종합청사내에 있는 외무부에서 근무하시다 전원이 2년 국비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줄넘기와 Tennis를 주로 하였는데,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시어 건강하신 몸으로 굳건한 信念을 가지고 노력하시어 외교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훌륭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아울러 考試界의 무궁한 발전과 미흡한 저를 이끌어 주신 부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조그만 영광을 아버지님 바칩니다.